



3면

"전북발전 공동 목표 현실로"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음 4월 26일) 제328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도민안전 최우선·체질화·생활화 '총력'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 ... 도, 비전 선포식**

종합대책 추진계획 발표... 3대 정책목표·5대 전략 담아  
안전 연계 재난안전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북도가 기후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 등 재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365일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북도는 13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서거석 교육감 유관기관, 민간단체, 시군 부단체장 등 도내 안전관련 각계각층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재난 환경의 변화와 현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진단을 통해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 20개 세부과제 내용이 담긴 전라북도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회, 안전이 체질화되는 문화, 안전이 생활화되는 도민 등 3대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새로운 위험 선제적 대비체계 강화,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체계 확대 구축, △재난의 신속한 원상회복 및 생활취약분야 안전망 강화, △안전 문화 확산 및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및 안전산업 육성 등 5대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조폐개정을 통해 주체가 없는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체계화해 500명 이상 행사시 행사종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종 재난위험요소 발굴 추진 민관협의체를 올해 하반기에 구성하기로 했다.

노후건축물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침수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등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재난 예방과 대응활동을 추진하며, 도환경청 및 도시건설 등 유관기관 간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상호 정보공유 및 상황전파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한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기반장비 등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까지 포함한 종합 복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과의 1:1 공무원 매칭 등을 통해 사고 수습 및 피해지원 등 윈윈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안전망과 생활환경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 안전조치 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예방사업, 민생안전



13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 비전 선포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서거석 교육감, 유관기관, 민간단체, 시군 부단체장 등 도내 안전관련 각계각층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비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특사경 단속 및 읍면동·119안전센터 등 최일선 기관 기능 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도는 중대재해예방 지원센터를 운영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법적 안전보건의무를 적극 컨설팅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사업장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과감하게 추진된다.

지난해 12월,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한 도는 올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재난안전 신기술 등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지난 4월에 전국 최초로 선정된 국비 90여원이 지원되는 '침수안전 산업 진흥사업' 조성사업을 통해 재난 안전 제품·기술의 성능시험·평가·인증 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판로개척 등을 일괄 지원할 계획으로 전북도가 안전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선포식에서는 자리에 참석한 기관·단체가 한 뜻으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하고, △안전취약계층

배려, △모든 일에 안전을 최우선 고려,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 등 3대 실천 선언을 통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안전은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오늘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 비전을 선포하는 것은 더 새롭고 더 특별한 전북도로 도약하기 위한 약속이자 발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안전이 최우선 시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서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추진

전북도·문화재청·군산시  
농어촌공사, 업무협약 체결

전문인력 양성·전시·체험  
가능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전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중 유물을 발굴하고 보존해 나가기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뿐 아니라 전시와 체험도 할 수 있는 국립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추진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13일 오후 1시 30분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최영현 문화재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박태선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조성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가칭)'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12면>

이번 협약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에서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이하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상호 협력과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교육훈련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협력,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협력,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협의 체계 구축 등이다.  
교육훈련센터는 군산시 비응도동에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교육·훈련, 수중문화재 보존·탐사 기술 개발, 수중문화재 전시·체험 등이 통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군산 앞바다는 역사상 세계선과 무역선이 지나던 뱃길인 조운로와 대동국 교역의 거점으로 비안도·삼아동파도·야미도 해역 등에서 고려시대 선박 1척을 비롯해 유물 1만5,000여 점이 발굴된 곳이다.

이처럼 수중 발굴 유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전시공간이 없어 목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유물을 전시·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군산시는 앞으로 문화재청·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협력해 전북지역 최초의 해양 관련 국립기관이 될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관 기자

## 차세대 반도체 인재 양성 '물꼬'

전북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  
4년간 340억 지원받아... 안정적 교육 기반 구축

을 대응 투자해 안정적으로 반도체 교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전북대와 전남대는 '반도체 융합전공'을 신설해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차세대 모빌리티 융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

설 계획이다.

전북대는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및 센서 반도체 트랙을 운영하고, 반도체 관련 취·창업과 현장실습, 실무 전문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실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반도체 관련 연구소 등과 연계한 연구 프로젝트와 현장실습, 이론/응용 교육 등 체계적인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대는 차세대 모빌리티 융 반도체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화랩을 구축하고, 전용 교육시설 및 공간 확보 등 교

육 인프라 및 관리 체계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사업 선정은 지역의 주력 산업인 차세대 모빌리티 융 반도체 분야가 한 단계 성장하고,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전북대에는 이미 반도체 소자의 일괄 공정이 가능한 반도체랩이 구축돼 있는 만큼 이러한 우수 인프라를 잘 활용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